



우수 봉사자 수상자

- 환자 돌봄이 부문

# 소뇌위축증의 남편을 화초처럼 9년째 간호하는 하느님 사랑의 증거자

이명숙씨는 언제나 남편과의 삶을 기뻐하며  
남편의 손과 발 그리고 눈과 입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에  
하느님의 축복이라 진실을 말하는 천사이다.

**현재** 이명숙씨의 남편은 소뇌위축증이라는 병으로 투병하고 있다. 남편 김홍준씨는 자영업을 경영하는 다정한 아빠로서 소문난 기술자였다. 그런 김홍준씨에게 갑자기 소뇌위축증, 다기능위축증, 자율신경 기능저하라는 희귀한 병마가 찾아왔다.

지금은 병이 악화되어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 이명숙씨는 국가가 지급하는 소액의 장애연금과 아들의 아르바이트 벌이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지만, 언제나 남편과의 삶을 기뻐하며 남편의 손과 발 그리고 눈과 입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에 하느님의 축복이라 진실을 말하는 천사이다. 철저한 식이요법으로 남편의 건강을 지키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히는 일, 방광세척수술 부위의 치료, 욕창을 방지하기 위한 체



이 명 숙(루치아)

위변경,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마사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지 어언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9년전에 3~5년 정도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이 현재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이르도록 큰 사랑으로 정성을 다한 것이다. 이명숙씨는 자신의 남편을 화초처럼 생각한다. 해바라기처럼 자신만 바라보는 남편이 그 누구보다 사랑스럽다는 그녀는 실제로 화초 기르기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많은 화초를 가꾸며 그들로 부터 많은 지혜를 배운다고 한다.

동영상으로 상영된 이명숙씨의 사연에 참석자 모두는 환자의 심각한 상태와 정성스럽게 환자를 돌보는 이명숙씨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고 쾌유를 위해 두손 모아 기도했다. 🙏